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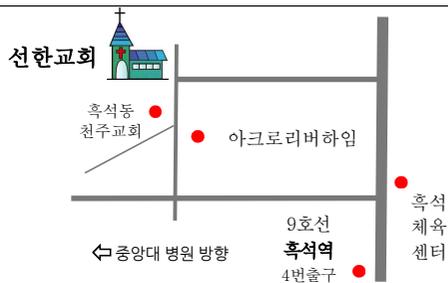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예 스 더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4 (시편 5편)
찬 양 과 경 배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대 표 기 도	조 윤 익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25장 31~46절
설 교	양과 염소의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악을 도모하며 사는 자 (잠14:17-35)

교 회 소 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행21장~고후13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 주 간 의
기 도 제 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정예배

꾸준히 걷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찬송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통 456)

본문 : 이사야 40장 27~31절

말씀 : 주님께서서는 젊은이도 지치고 장정도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새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날아오르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걷는 모습입니다. 그 순서가 흥미롭습니다. 음악 용어로 말한다면 점점 세지는 크레센도가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데크레센도입니다. 걷다가 뛰다가 날아오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전개됩니다. 날아오르다가 뛰다가 걷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다할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듯 멋지게 비상합니다. 선교사가 될까, 신학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 증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달려갑니다. 여전히 주를 위한 열정으로 이것저것 열심을 냅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걸어갑니다. 드디어 삶이 신앙이 되는 신앙인이 됩니다. 예배당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 일상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뛰는 것 같지도 않지만, 꾸준히 뚜벅뚜벅 걷습니다.

1, 2년 연애는 날아가듯 달려가듯 신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난해도 늙어가도 뚜벅뚜벅 걷는 사랑입니다. 가끔 이벤트와 여행으로 날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지만 다시 걷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날아보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늘 날아다니겠다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평생 달리기 한 번 못해 본 것도 안타깝지만 평생 달리며 살겠다는 것도 오만입니다. 변함없이 뚜벅뚜벅 걷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러다 필요하면 달리고 필요하면 날면 됩니다. 한때 날아다니다가 지금은 누워있는 사람들, 한때 뛰어다니다가 지금은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신앙은 힘들어도 걷는 겁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이 실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영의 모습은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걸모습이 요란할 때, 그때는 걸음마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정돈된 모습으로 주를 믿을 때는 달리를 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은 독수리처럼 날아다닙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예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말씀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걷고 내 마음이 바닥을 쳐도 발을 내딛습니다. 꾸준히 걷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양과 염소의 비유 (마25:31-46)

서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 양과 염소 비유 의미

- (1) 인자가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심(31절)
- (2)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구분하심: 오른편(양)과 왼편(염소)(32,33절)
- (3)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을 자들이고(34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받은 자들임(41절)
- (4) 축복받은 이유와 저주 받은 이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40절)과 '하지 아니한 것'(45절)
- (5) 결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46절)
- (6) 의미: ①주제는 '재림'때의 심판 ②인자(임금) '그리스도' ③주님이 '영광중에 오셔서 심판하심'은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④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 ⑤양은 염소는 '예수님을 따르는자와 따르지 않는자' ⑥심판내용은 '사랑 실천'

본론

2. 교훈

- (1)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자인가 따르지 않는자인가?
- (3)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결론

목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한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윤익 장로

조계승 장로

찬양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본문	마태복음 9:1-13
	<p>사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울무에 걸려 있던 한 소녀를 사망으로부터 건지시사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p> <p>죄란 본래 '과녁을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실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p> <p>또한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울무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인간들을 질병과 배고픔, 귀신들림 등으로부터 건져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가 모든 죄의 울무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는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건져내 주실 메시야이십니다.</p>
목상질문	예수님을 나는 어디까지 신뢰할수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 405)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로버트 콜만의 「천상의 노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당장이라도 전방으로 나아가 전투에 참가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날 때쯤, 한 젊은 장교가 연회를 연 주최측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 후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을 이어 갔습니다. “우리는 머잖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물론 죽을 가능성도 뒤따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말해 주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연회에 참석한 가수가 앞으로 나와 덴텔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전쟁 같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일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위로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완전한 안식의 길입니다.</p> <p>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찬양을 부르나요?</p>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11:20~30
목상포인트	<p>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고을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롬 2:5~6).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값없이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모든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예수님은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을 어떤 도시들과 비교하며 책망하셨나요?(20~24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 깊히 회개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저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으로 달려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복음 전파자가 해야 할 일

날짜 : 2월 5일

찬양	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본문	마태복음 10:16-33
	<p>복음 전파자는 그저 목적 없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도래 선포,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주셨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전하지 않고 전도자가 자기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는 전도자가 아닐 뿐더러 거짓 전도자로 인정되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p> <p>전도자는 말로 천국의 도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병 고침과 먹을 것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인간이 받는 구원이란 저 세상에서의 평강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평강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p> <p>전도자는 복음과 주의 평강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는 자칫 그 대가들 바라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전도자가 그가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자가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p>
묵상질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삶은 복음 전파자의 삶에 합당한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구원의 대상

날짜 : 2월 2일

찬양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본문	마태복음 9:14-26
	<p>예수께서는 세리나 창기, 가난하고 병 든 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들과 같이 지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억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p> <p>예수께서 병든 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부류는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고통을 겪어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고통의 질고를 벗겨 주실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p> <p>고통 가운데 있는 병 든 자만이 예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자, 삶의 소망이 없어 고통받는 자,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도 모두 구주 되신 예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사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p>
묵상질문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죄인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본문	마태복음 9:27-38
	<p>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받은 자는 이전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는 바른 인생의 궤도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p> <p>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그를 사랑하여야 할 것이며, 또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표시이며 하나 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p> <p>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말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p>
묵상질문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몇% 지키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본문	마태복음 10:1-15
	<p>예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자세를 일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보화나 지나친 돈이나 지나친 여행 도구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자가 나그네와 같이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청빈하고 홀가분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p> <p>예수께서 복음 전파자가 취해야 할 자세로 언급하신 두번째 것은, 복음 전파자는 다른 일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도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일에 전혀 무관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으나 자기가 먹고 입을 것을 위해 손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일에서 아주 떠나라는 의미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받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복음 전파 이외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p> <p>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제자들이 취해야 할 세번째 자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사단과 싸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p>
묵상질문	누구까지가 복음 전파자인가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오늘의 기도	